



2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선수단 출정식

전주매일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음 6월 25일) 제26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용담 · 섬진강댐 과다방류 조사를”

송하진 지사, 진안 수해현장 방문한 정 총리에 건의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30여명도 남원 찾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집중 호우피해를 입어 시름에 잠긴 전북 진안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와 관련 객관적 차원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13일 오후 정 총리와 함께 진안군 용담댐과 주천면 피해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남원을 비롯해 피해가 큰 무주와 진안 장수 등 수해현장의 주민들께서 한 목소리로 용담·섬진강댐의 방류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매우 객관적인 차원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원인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남원과 장수 무주 등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과 관계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송 지사가 방문한 장수 개장저수지는 설치된 지 60여 년이 지난 노후저수지이던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돼 4억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송 지사는 현장을 둘러보며, 도내 저수지별 전수 정밀조사를 통해 노후저수지에 대한 안전등급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뒤이어 찾은 진안 성수면 인삼피해 농가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무주 유령마을 침수피해 현장에서도 복구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현장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 본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음 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확정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30여 명이 이날 남원 금지면 용전마을 수해 현장을 찾아 가재도구 세척과 현장 정리 등 봉사활동과 함께 주민들을 위로하며 피해복구에 일손을 보탬다.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이 특별재난지역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해복구 국비 지원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집중 호우피해를 입어 시름에 잠긴 전북 진안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와 관련, 객관적 차원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사유 시설 중 시설물 피해만 반영되고, 농작물이나 가축 폐사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면적을 피해액으로 환산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는 재난지원금 현실화에 대해 피

해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기준보다 2배 이상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더운 불볕더위 속에서도 도내 곳곳에서 이어진 민·관·군의 구슬땀과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도로와 교량 등 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80%가량 완료했다. /유호상 기자

의사협회 오늘 파업 예고... 道 “도민 불편 최소화”

진료공백 대비 비상대책 마련

전북도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비,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14일 휴진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병·의원을 이용하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6곳(상급2, 종합11, 병원73)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또한 19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도내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3개소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는 집단휴진기간에도 정상적 진료를 실시한다. 공공보건기관 402개소(무주, 장수, 임실, 순창군보건의료원 4개소, 시군보건소 10개소, 보건지소 150개소, 보건진료소 238개소)도 정상 운영해 진료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2일 부터 집단휴진 종료시까지 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비상진료기관 및 휴진불참 의료기관 등을 안내한다. 더불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등을 통해 진료가능 의료기관이 안내될 예정이다. 도내 14개, 집단 휴진일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휴진신고명령 행정조치를 위해 휴진신고 접수간수를 파악하고 있다.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30% 이상일 경우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예정이다. 특히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반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에서는 전북도사회에 휴진 자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와 도의 방침과 불이익 등을 사전 안내하였고 도내 상급병원장(전북대학병원, 원광대학병원)을 만나 진료공백 최소화 요청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왔다. /유호상 기자

‘처음학교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전북교육청,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담당자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연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13일 오후 2시부터 2층 강당에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선도 교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시스템 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입학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부터 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처음학교로’의 주요 기능개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2021학년도 유아모집·선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에서는 재학생 등록·모집요강·인원관리부터 일반모집·추가모집·정보전송 영역, 학부모 서비스인 회원가입 우선·일반모집 원서접수 방법까지 시스템 사용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처음학교로는 일반모집에서

희망순 추첨(중복선발제한) 방법을 통해 기존의 자동추첨 방법(희망순 추첨)보다 최초 선발 확률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점, 접수결과 및 선발결과를 모바일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일반모집 사전접수를 진행한다는 점, 우선모집 자격을 온라인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점 등이 2021학년도 주요 안내 사항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서비스에서는 모집요강 조회시 유치원별 등록률 입학설명회 일정 확인이 가능해졌고, 회원가입시 입력한 학부모 성명이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원서접수시 유아 연령에 따라 접수 가능한 모집과정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유치원 업무 담당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정부, 남원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지원받아 복구 총력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남원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남원시는 남원지역 총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60억원이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경남 하동 등 11개 지자체(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 합천군 등)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조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남원시는 2010년, 2011년, 2012년 태풍 및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집과 살림살이를 잃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로 실의와 상심에 빠진 이재민과 농민, 소상공인 등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기부금품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복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17일 대체휴무 관계로 18일자까지 신문 쉽니다

코로나 19 함께 이겨냅시다!

군민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의회

완주군의의회

의장 김재천 부의장 최등원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소완섭 위원 임귀현 위원 최등원 위원 정중윤 위원 이경애	위원장 최찬영 부위원장 이인숙 위원 최등원 위원 정중윤 위원 이경애	위원장 임귀현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 서남용 위원 윤수봉 위원 소완섭
---	---	---

#의료진 덕분에 #완주군민 덕분에

완주군의의회

완주1경 대둔산도립공원